



노 90.4.6

# 공장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

으로 일하러 나간 남편이 지 않는다. 그러다 공장동 찾아와 남편이 죽었다고 다. 아내는 실신하고 동료 이제 죽은 노동자의 아내를 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

난 아내는 통곡하고, 남편 로들도 마음을 가누지 못하 을 흥친다.

실의 빈소 앞에 앉은 아내 커 불며 몸을 가누지 못하 이 실신한다.

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. 에는 남편이 새카맣게 타 아온 경동산업의 노동자 아 건설중장비 바퀴에 짓눌려 대우중공업의 노동자 아 있다.

은 모두 자신의 아내에게 까지 지을 수 없는 깊은 주고 갔다.

서는 이땅에 노동자로 태 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다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 들은 몇배 몇십배의 아픔을 에 간직한 채, 그리고 남 배 떠나갔다.

산 노동자의 아내만이 그 아픔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

것이다.

사랑하는 남편을 자본가의 밥 으로 남기고 혼자 울면서 쓰러져 실신하면서 아픔을 떠안아야 하 는 것이다.

도대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어떻게 산단 말인가.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아이들을 안고 무슨 설명으로 달래며 살 것인가.

싸늘하게 죽어있는 남편의 시 체앞에서 흥정되고 있는 보험협 의는 오히려 그 아내의 아픈 마 음마저 철저하게 외면하는 짓거 리에 불과하다.

보상금으로 죽은 노동자의 아내를 달랠 수는 없으며, 그 동료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깊이 생각 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다시는 자신의 아내를 저와 같은 상황으 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한 일들에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야 하는 것 이다.

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시커먼 불길속으로 휩싸이지 않도록, 중 장비에 짓눌리지 않기위하여 산 노동자들은 대오각성해야만 하 는 것이다.

그것은 홀로 남는 아내와 아이 들에게 더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것을 살아 있을때 확실 하게 깨달아야 한다.

하얀 소복차림으로 남편의 죽 음을 끌어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우는 아내를 보고도 그것을 느끼 지 못한다면, 그리고 영원히 보 낼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 내며 쓰러지는, '공장에서 남편 을 잃은 아내'를 보고서도 그것 을 깨닫지 못한다면....

공장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는 그 유일한 이유가 남편이 노동자 였다는 점이다.

때로는 다수 동료 노동자의 이 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장섰다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철벽 을 마주하면서, 아니면 오직 생 산량 증가에만 눈이 어두어 공장 곳곳에 죽음의 함정을 방치해 놓 고 있는 산업재해의 탓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며 그 것은 곧 이 '비정한 자본주의의 노동자 정책'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이다.

우는 노동자의 아내여.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소복은 이와 같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남 편이 입힌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정한 공장의 현실이 강제한 것 입니다. 당신이 떠나가는 남편을 뒤쫓으며 영원히 보내지 못해 우 리 모두를 울리고 있는 만큼 당 신의 남편은 우리 곁에 여전히

남아있는 것입니다.

지난 3월3일 오전 인천 대우중 공업 중기본부에 근무하는 한 노 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 다. 그의 이름은 이종진. 나이는 서른둘이며 세살 아이와 다섯달 짜의 아기가 엄마 배안에서 자라 고 있다.

그는 그동안 잔업 철야로 겨우 조그만 집을 장만해 다음달에 입주할 것을 준비중에 있었다. 필 자는 이종진 동지의 죽음이후 내 내 빈소 곁에 있으면서 노동운동 이고 뭐고 이전에 똑같이 한 가 정을 가지고 있다는,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두고 있다는 동질감 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 다.

'노동자가 공장에서 죽기까지 해야 한다니'.

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무심하 게 죽어야 한다니, 그토록 사랑 하는 아내가 죽은 남편을 붙들고 울어야만 한다니....너무나 아 픈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.

우리 모두 항상 벌어질 수 있 는 이 기가 막힌 생이별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동자의 힘을 길러야 한다.

박 윤 배(노동운동가)